

“복지소외지대에 ‘행복 바이러스’ 전파를”

정읍시, 읍·면·동 복지허브화 설명회 200여명 참석 특강 들어

정읍시는 2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읍면동 복지 허브화 설명회 및 행복 바이러스 특강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회의 위원과 대표 협의체 위원, 실무 협의체 위원 등 모두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시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을 위한 민간지원 발굴 및 현장 중심 밀착형 과수꾼으로서의 역할 등에 대해 설명했다.

또 초빙강사로 나선 이승미 우석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변화하는 복지에 대한 내용과 행복을 나누는 행복 바이러스 운동 방향 등을 주제로 강연해 호응을 얻었다.

시에 따르면 읍면동 복지 허브화는 복지 전달체계를 읍면동 중심으로 강화하고, ‘찾아오는 민원해결’에서 ‘직접 찾아가는 민원해결’로의 전환을 통해 현장 중심의 밀착형 복지 서비스를 촘촘하게 제공하는 서비스

이다.

오는 2018년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올해 전국 700개소 시범 지역 중 정읍시에서는 4개소(신대인읍, 고부면, 수성동, 내장상동)가 운영되고 있다.

한편 이날 특강 주제인 행복 바이러스 운동은 정읍시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지원 활동이다.

시는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손잡고 정읍시 전용계좌를 개설해 단체와 개인 등 순수 민간자원을 통한 지원금으로 소외계층을 발굴해 지원한다.

맞춤형 복지급여 등의 변경된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현실에서 꼭 도움이 필요한 세대가 법과 제도의 틀에 갇혀 보호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꼼꼼한 복지 안전망 사업이다.



이날 특강 주제인 행복 바이러스 운동은 정읍시가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민간지원 활동이다.

김생기 시장은 “자발적 민간지원 연계를 통한 기부문화 확산을 꾀해 복지시각지대를 지속적으로 지속 발굴하고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를 해

소하고 함께하는 모두가 더불어 행복하고 함께 하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해바라기봉사단, 감사케이크 전달

회원 50여명, 보훈가족 36가정에

완산구 해바라기봉사단(회장 조언자) 회원 50여명은 2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관내 보훈가족 36가정에 감사와 위로의 마음을 담은 나라사랑 감사 태극케이크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희생과 영예를 기리고 존경과 예우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언자 회장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케이크를 준비했다.”며 “조국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 젊음을 기꺼이 바친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배려 할 수 있도록 우리 해바라기봉사단이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김영재기자



덕진구 가족청소년과,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점검

덕진구(구청장 정태현)에서는 장애인자동차표지 부당사용 방지를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덕진구 15개 동 주민센터와 공조해 위·변조 및 타인의 표지 악용 등 부당하게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사용하느니 여부를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장애인자동차주차표지 부당사용 시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변조에 해당 될 경우 형법에 의거 형사고발 될 수 있다.

박용자 가족청소년과장은 “장애인자동차주차표지 부당사용행위 단순은 과태료 부과 목적이 아니고 교통약자인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호에 있다”며 “더불어 사는 따뜻한 사회를 만들수 있도록 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재 기자

완산구, 장마철 대비 하천 환경 정비 추진

전주시 완산구(구청장 최라희)는 2일 본격적인 우기와 피서철을 대비해 하천 오염과 제방 붕괴 등 재난사고를 유발하는 하천 내 불법행위를 집중 지도하고 하천 환경 정비에 나섰다.

완산구에는 지방하천 11개, 총49km의 하천이 있으며 도심과 가깝고 수질이 깨끗한 상류 지역은 평년보다 이른 더위를 피해 찾아오는 많은 시민들로 인한 쓰레기 투기와 불법 영업을 위한 평상 설치로 하천 환경 저해가 예상되고 있다.

이에 완산구는 하천 오염 방지를 위해 ‘쓰레기 되가져 가기’ 안내문 홍보를 강화하고 평상 설치 등 하천 환경 저해와 유수흐름에 지장을 주는 불법 시설물 설치 행위에 대해 집중 지도·점검을 펼치고 있다.

또한 하천 제방을 훼손하고 비료, 농약 살포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하천 변 불법 경작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에는 하천법에 따라 점용료보다 1.2배 많은 변상금을 징수하고 원상복구 조치시킬 계획이다.

다만, 하천 제방 및 환경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는 변상금을 납부하고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 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전재삼 완산구 생태도시과장은 “우기 및 피서철을 대비해 하천 환경과 유수흐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난발생을 유발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지도단속을 통해 재해예방 및 쾌적한 하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재기자

어린이 수화노래경연대회 성료

청각장애인 인식개선·수화언어 저변확대

(사)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학원)는 2일 전주시 덕진구 장동 소재 기지저수지에서 직원 80여명이 저수지 주변과 내수면 쓰레기 수거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전주완주임실지사(지사장 김창호)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김학원 본부장은 “내고향 물 살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소중한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전직원이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물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실천수기, 표어 등 공모전도 매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와 10개지사에서서는 전북관내 417개소의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쓰레기와 오물이 많은 저수지를 대상으로 매월 1회씩 1개소의 저수지에 대하여 환경정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신광영기자

정읍경찰서, 호국보훈의 달 맞아 칠보 충훈탑 참배

정읍경찰서(서장 김주원)는 2일 오전 정읍시 칠보면에 위치한 칠보 충훈탑을 찾아 추념식을 갖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날 추념식은 김주원 서장을 비롯해 각 과장 및 파출소장 등 20여명과 함께 충훈탑을 참배하면서 시민이 안전한 정읍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정읍 칠보면 시산리에 있는 칠보 발전소는 우리나라 최초의 유역 변경식 수력발전소로 1945년에 건설되어 당시 남한 유일의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로 강원 영월 발전소가 적에게 점거된 직후, 남한 일대의 송전 공급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장소였다.

칠보 충훈탑은 敵 2,500여명에 정읍 칠보발전소 일대를 포위하자 당시 경찰 70명으로 탈환한(1951. 01.) 차일혁 경무관의 경찰혼이 새겨있는 곳으로 매년 지역주민과 유가족, 학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참배가 거행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전북개발공사, 기업윤리의날 행사 개최

전북개발공사(사장 고재찬)는 2일 기업의 윤리경영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임직원의 청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기업윤리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전 임직원은 이날 전북혁신도시에 위치한 사옥에서 ▲기업윤리의 날 선포 ▲신임직원 청렴서약 ▲청렴커피프레이프 등 다양한 참여형 행사를 통해 윤리경영 준수 의지를 다졌다.

고재찬 사장은 “전북개발공사가 지속 성장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정직과 성실한 행동으로 고객의 신뢰를 얻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원칙을 지키고 높은 수준의 윤리경영을 펼쳐 도민에게 사랑받는 회사로 나아가자”고 당부했다. /신광영기자

전북대병원, 저소득층 어린이 대상 보장구 지원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강명제)이 재활의학과와 피부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저소득 어린이를 위한 보장구 지원사업을 펼친다.

2일 전북대병원에 따르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는 저소득 어린이환아를 대상으로 재활의학과 및 피부과의 보장구 구입비(가발 포함)를 1인당 50만원에서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어린이재단과 현대자동차와 공동으로 실시하며 지원금은 현대자동차와 현대자동차 고객들이 저소득가정환아의 치료비지원을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한 금액으로 조성된 블루멤버스 드림펀드를 통해 지원된다.

대상 환아는 국민기초생활 수급가정 및 차상위가정, 일반 저소득가정의 만 18세 이하이며, 만 18세를 넘긴 경우에도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박용주 기자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 저수지 쓰레기 수거 활동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김학원)는 2일 전주시 덕진구 장동 소재 기지저수지에서 직원 80여명이 저수지 주변과 내수면 쓰레기 수거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전주완주임실지사(지사장 김창호)와 합동으로 진행됐다. 김학원 본부장은 “내고향 물 살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소중한 물을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전직원이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물의 소중함을 알릴 수 있는 실천수기, 표어 등 공모전도 매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와 10개지사에서서는 전북관내 417개소의 저수지를 관리하고 있으며 쓰레기와 오물이 많은 저수지를 대상으로 매월 1회씩 1개소의 저수지에 대하여 환경정화 행사를 실시하고 있다. /신광영기자

순창경찰, 목요일마다 공감대화의 날 운영

순창경찰서(서장 최규은)는 2일부터 매주 목요일 情感은 ‘共感 대화의 날’을 운영 서장과 현장 근무자간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일 잘하고 깨끗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공감 대화의 날은 경찰서장과 부서별 현장 직원과의 만남을 통해 평소 지나치기 쉬운 개인적인 애로사항 및 업무추진에 부족한 부분을 매워가는 소통의 장이며 형사나 딱딱한 분위기를 얹고 자유스런 분위기로 진행 화합과 결속력을 다져간다는 방침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무주경찰서, 명예경찰소년단 힐링캠프 개최

무주경찰서(서장 한도연)는 2일 명예경찰 소년단 힐링캠프를 가졌다. 이번 캠프에서는 명예경찰로 활동 중인 초등학생 24명 및 지역봉사 협력단체인 (사)파트를 맘과 함께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및 솔로로(LAW) 파크로 체험 및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이날 행사에 참가한 한 학생은 “교과서만 보았던 과학 원리에 대하여 직접 눈으로 보고 체험하여 너무 신기했었다며” 체험에 열의를 보였다.

또한 무주경찰서 관계자는 “명예경찰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 하겠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명예경찰소년단은 프래저킴이로써 학교폭력예방활동을 수행하고 각종 봉사활동 및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군산시, 제6회 현충일 추념식 거행

군산시는 오는 6일 오전 10시 군영합동묘지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추모하는 ‘제6회 현충일 추념식’을 거행한다.

이날 추념식에는 문동신 군산시장과 보훈단체장, 국가유공자와 유족, 군인 경찰 시민 등 1,000여 명이 참석하여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넋을 기리게 된다.

추념식은 10시에 전국적으로 울리는 사이렌에 맞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묵념과, 헌화 및 분향 추념사, 고등학생 대표의 헌사 낭독, 현충일 노래제창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군산=문정근 기자

전주매일			
www.jnaei.com		2016년 1월 25일 등록(일간)	
등록번호 전북가00016		우5609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4층 (서노송동)	
부회장 김승근 전무 김관준 편집국장 이백수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시	종양지사 010-9088-6674	남양지사 632-3986	고창지사 566-6990
010-9665-418	인후지사 246-6655	김제지사 547-6655	임실지사 010-9642-2725
삼천지사	송천지사 255-204	완주지사 246-6655	진안지사 438-3054
010-2333-479	팔복지사 255-6884	남원지사 632-0955	정읍지사 539-3767
서산지사 272-947	군산시 445-0167	순창지사 659-0444	장수지사 010-3822-819
호치지사 010-6855-9955	익산지사 859-9923	부안지사 594-042	무주지사 010-2300-428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